

91학년도 국어국문학과 학술답사 보고서

- 구비문학반 학술답사 보고서
- 현대작가반 학술답사 보고서
- 방언반 학술답사 보고서

구비문학반 학술답사 보고서

1. 답사지역 및 조편성

구비문학반에서는 1991. 5. 8(수)부터 5. 11(토)까지 3박 4일간 강화도 일대에서 답사활동을 하였다. 답사에 앞서 5. 7(월)에 서대석·권두환 선생님을 모시고 제반 준비사항을 확인한 후 답사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구비문학반의 조사대상 지역 및 조사원은 다음과 같다.

○지도교수 : 민병수, 이상택, 김병국, 서대석, 권두환

○조편성 및 지역 분담 내역

제 1 조—강화읍 일대 : 서대석(교수)
정재민(석사과정), 이지하(석사과정),
민영근(학부), 이지영(학부)

제 2 조—교동면 일대 : 권두환(교수)
이종묵(박사과정), 정병설(석사과정),
조해숙(석사과정), 김은정(석사과정),

제 3 조—길상면 일대 : 강혜선(박사과정), 사진실(박사과정), 황재문(석사과정), 이선재(학부), 손금주(학부)

제 4 조—양도면 일대 : 송성욱(박사과정), 이인경(석사과정), 장대철(석사과정), 정한기(석사과정), 조윤주(학부)

제 5 조—화도면 일대 : 조세형(박사과정), 박종성(박사과정), 최원오(석사과정), 김탁환(석사과정), 신성호(학부)

2. 활동내용

1991. 5. 8. 10 : 00 에 강화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12 : 00 경에 강화읍에 도착하였다.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조별로 조사에 임하였다. 5. 10 오후까지 조별 조사활동을 마친 후 5. 10 저녁에 삼산면에 집결하여 자체평가회를 가졌다.

조별 활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 5월 8일 경신회 강화지회장 고상순씨의 안내로 독경부 신종렬씨를 만나 천수경을 채록하였다. 5월 9일에는 강화노인정에서 유운종씨로부터 손돌목 설화를, 한춘수씨로부터 고사덕담 1편을 채록했으며, 신문리노인정에서는 3편의 설화를 채록했다.

제 2 조 : 5월 9일 오후 삼산면 석모리에서 강신무 홍춘활을 만나 칠성굿풀이의 무가 3편, 민요 1편을 채록하였다. 5월 10일 교동면 교동향교에서 이강성씨로부터 전설 5편을 채록하고, 권오규씨로부터 곱세치기 노래를 채록하였다.

제 3 조 : 5월 8일 길상면 온수리에서 이하금씨로부터 설화 5편을 채록하였다. 5월 9일 길상면 온수리에서 최지순씨로부터 설화 13편을 채록하고, 강영자씨로부터 설화 3편을 채록하였다. 오후에 강신무 김준예씨로부터 체석본 풀이의 무가 3편을 채록하였다.

제 4 조 : 5월 8일 양도면에서 박길용 씨로부터 설화 2편, 유형옥 씨로부터 설화 5편을 채록하였다. 5월 9일 김영래 씨로부터 설화 12편을 채록하고, 오후에는 권경일 씨로부터 호랑이 이야기의 설화 7편을 채록하였다.

제 5 조 : 5월 8일 화도면 상방리에서 신의하 씨로부터 설화 15편을 채록하고, 내리에서 박문원 씨로부터 설화 3편을 채록하였다. 5월 9일 장화리에서 주의종 씨로부터 심장가의 잡가 4편, 설화 6편을 채록하였다.

3. 평가회 및 해단식

○ 자체평가회 : 5월 10일 저녁에 삼산면에서 담사에 참가한 인원 전원이 집결하여 자체 평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쉽게 제보자를 만나지 못하여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며, 사전 준비의 부족도 지적되었다. 그러나, 현지 담사를 체험함으로써 유익한 경험을 얻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사전 준비가 있었던 조에서는 훌륭한 제보자를 구할 수 있었던 점에서 사전 준비의 필요성이 거듭 지적되었다.

○ 전체평가회 및 해단식 : 1991. 5. 28 (화) 1~207에서 학과 주관으로 전체 평가회 및 해단식이 있었다. 구비문학 반은 신성호(학부)군의 조사결과 보고가 있었다.

* 이 지면을 빌어 바쁜 가운데서도 귀한 자료를 구연해주신 제보자 여러분과 강화군청, 강화 교동향교, 문화

원, 노인회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 지면 관계상 채록된 자료 중 일부만을 뽑아 수록한 것임을 밝힌다.

I. 강화읍

[조사마을 : 강화읍]

강화군의 북동쪽에 위치한 읍으로 면적은 33.08km이고 인구는 2만명이다. 읍의 동쪽 해안은 한강과 한강의 지류인 염하와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선원면, 서쪽으로는 송해면, 내가면, 하점면과 접하고 있다. 읍의 동서남북에는 당산, 견자산, 남산, 북산이 위치하고 있어서 분지상의 지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쉽게 되어 있다. 1232년 몽고가 침입했을 때는 70년간 임시 수도였으며, 명자호란 때는 왕족의 피난지였으므로 역사적 사건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다.

북산 일대는 주로 관공서와 주택가가 들어서 있고 동락천 전너 신문리 일대에는 시장 상점 공장 등이 들어서 있다. 농경지는 총 면적의 40%이고 그중 68%가 논이다. 농업인구는 총 인구의 약 36% 정도라고 한다.

주요 사적 및 명승지로는 옛날 내성(內城)의 성문인 西門과 南門이 있고 燕尾亭, 南小寺, 青修庵, 靑蓮寺 및 고려시대 궁지, 칠종의 생가인 龍興宮, 강화 유수부, 이방청, 강화향교, 김상

용 순절비 등이 있다.

[강화읍 제보자]

강화읍 강화노인정, 조완식, 남. 65세.

1991. 5. 9. 서대석, 이지하, 정재민, 이지영, 민영근 조사.

강화 출신으로 학교수업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목소리가 우렁차고 정확하여 알아듣기가 쉬웠다. 고사덕담을 구연한 한춘수씨의 제보가 끝나고 여러가지 설화의 운을 띠우다가 채소장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처음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어서 이야기의 구연이 매끄럽지 못했으나 후반부에서는 매끄러운 편이었다. 소화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듯 했으나 채소장수 이야기 의의 다른 이야기의 구연은 하려고 들지 않았다.

○ 설화

〈임금을 몰라 본 채소장수〉

*고려대학교에서 산을 넘어 가다면 다리를 놓았던 혼적이 있는데 그 다리가 무슨 다리인지 아느냐고 물길래 조사자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비로소 구연을 시작했다.

그것이 그전에 인종왕께서 민간시찰을 아주 좋아하셨다. 영외에서, 궁안에서 나와서 거 거시기 애, 지금 실례지만 옛 살이십니까? (조사자: 저는 쉰 됐습니다.) 쉰 살, 우리하곤 십육년, 시오년 맞인데, 쉰살이면 아실꺼야,

그 없어진 지 이십오년, 한 삼십년 됐을꺼야, 거 사실 그전에 쇠文化传播, 돼지뼈다귀 큰 솔에다 끓여 가주구서 우거지 집어넣구, 지금 의주통 가면 그국이 있다구. 예, 그런데, 예, 아, 그 앞으로 지나가기만 하면 냄새가 대단하다구, 그런데 그것이 어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먹느냐, 천호동 그 다리 근너, 그당시엔 그 다리가 웃었단말야. 지금은 뭐 무슨 다리 무슨 다리 많지만, 그러문 채소 심어 보시구, 거 거시기 하면, 그 전너오려면 일단 건너오기 전에 발을 경쟁이까지, 넘적다리까지 걸어올리구서 지게 지구 신발을 들어 들구서 이제 건너오게 돼 있었는데, 거 어디 채소장사가 가만이 보니까 삼팔바지를 입었는데 신발서께 양말이 보통양반이 아니더란 말야. 의복은 그저 우습게 입구 있지마는.

아 그런데, 해장국에, 해장국을 언제 먹느냐 하면 세시부터 네시 사이 찔 많은거야. 그럼 거 천호동에서 몇 시에 지고 나오느냐, 초조녁 한잠 자구선 그냥, 그저 한그릇 먹구 그저, 한잔 잔뜩 지구서 인저, 시오리, 한 십리이상 이십리까지 지구 오면, 그 등대문 밑에 그 청계지점까지 오면은 출출허니, 지게 내려놓구 막걸리 한잔 허구 밥 한 숟가락 얻어먹구, 우거지국에 뼈다구국을 먹는데, 그 어느 양반이 가만이 옆에 섰는데 자체도 다르고, 사람이 많으니깐 공무니서 용, 사람 피는 것두 아니구, 아참 양반이는데, 아 그 참 의복을 보니깐 삼팔바지에 조끼도

안 일고 그냥 허름하게 입구 온 것이 신발이나 의복이나 전부 고급인데, 어참 그 이상하다. 그래서,
“나리님 아 이리 오십시오.”
말야.

“아유 좋습니다.”
아 그래 국을 받아다가 체소장사가 갖다 주구 오는데, 가끔 거기서 만나고 그랬다 이거야.
“그 참 이상하다. 아 대관절 당신 성이 뭐요.”

“네. 난 저 천호동 사는 김아무개입니다. 나리 형은 성이 뭐요.”

“난 이씨야, 이서방야.”
이 그래 그렇게 자꾸 만나서 거시기 허던 그 사람이 고만,
“오늘도 또 오셨습니다.”
하고 국을 받아다 술이고 같이 먹고 허다가,

“김씨, 김서방, 돈은 내가 벌께.”
아 그래 이서방이라는 양반이, 왕이 죄 내는거야. 이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참 그 인간상이 좋더란 이거야. 생기기도 뚱뚱하게 생긴 사람이, 아주 복스럽게 생기고 참 달리는 것 없이, 어먼지 아주 맘에 들어, 인간적 면으로. 아 그래서,

“여봐, 나가 집이 어디로 오더면 홍이문이라는 디가 있어. 홍이문이라는 데 있는데, 인사동쪽으로 오면, 그리 와서 이서방을 찾으려는 나가 나울테니까는 그리와서 찾으라구, 근데 우리 집이 거 문지기가 있으니깐 문지기더러 얘기하던 된다” 구 말야.

“그리구 이마가 열두시 넘어서 새루 한시쯤 그려 가겠수.”

“그리 허라. 나 기두리고 있을테니 꼭 오라.” 구.

그래 인자 불안하여 물건두 잘 팔리구 해서 거 홍의문이라는 멜 잔 거야. 아 그래 거길 찾는데, 아 보초 서는 창든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아 나 이서방죽, 그 양반 좀 봐려왔다니까.”

“아 이거 뭐 가라.”

허니까, “아 어보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에 형제주점 거기서 꼭 오라고 해서 여왔는데 무슨 말이냐.”

허니까, 아 그러니까 이때나 오까 그 때나 오까 안에서 아마 기다리던 차에 왁자지껄 떠드니까 내다 보니 김서방야.

“아 애 얘델아, 그 양반 이리 들어 보내라.”

아 그래서,

“댁이 여기십니까?”

“으응, 우리집이 여기야. 아, 이리 들어와.”

방으로 인체, 김씨, 그 김서방이라는 사람을 모서놓고 주인상이 들어왔는데,

“아니 당신 양반네 댁은 얼마나 잘 살걸래 주인상이 거시기 허나”
구, 말야.

“아 우리야 빠 남부럽지 않게 살지.
어서 들라구.”

아 그래 막걸리 안에 그냥 뭐 둥동주에다가 살것 먹구 그러는데,

“그 당신은 김서방은 거 뭐 애로운 점이 없느냐?”

그러니깐,

“아 내가 천호등 사는데, 아주 아칙이던, 괴울이던, 여름은 좋은데, 겨울엔 그냥 개울을, 추울 때는 아주 그냥 징개일 걷고 물을 건너 오는데, 다리가 어떻게 찬지, 아주 어떨 때는 아주 죽겠다 말야. 그 다리 좀 놗으면.”

그래 거 다릴 놗다 이거야.

‘그리 냐’, 말야,

“나가 다릴 놔주께.”

아 이 사람이 그때야, 아 이게 왕이라 는게, 동네 가 예기하니깐,

“이 놈아, 그게 우리 왕이다.”

말야. 이 명추야. (청자 웃음)
아 이 무식허면 뭐, 아 그때만 해도 무식한 사람이 많았어. 쥐여 주어도 물르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거마따나 죄 일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 뭐 인종왕께서 봐 주셨다는 게야. 거 경자가 들어가, 경사, 경사雙자가 들어가.

그 저 한양대학에서 그 쪽에서는 다리가 크지만은 나로 고 좌측으로 이리 끼 내리다 보면 돌이 어떻게 집결이 되, 그냥 있다구. (조사자: 예)

Ⅱ. 강화군 길상면

[조사마을 : 길상면(吉祥面)]

군의 동남단에 위치한 면으로 면적 34.70km², 인구 7,000여명이며 면소

재지는 온수리이다. 조선시대에 길상산의 이름을 따서 길상면이라 칭하였다. 면의 중앙부에 경족산, 남부에 길상산이 있는데, 길상산 산정의 약천이 유명하다. 길상산 산록에는 고려 말기에서 조선후기까지 목장이 있어 길상산 약쪽으로 많은 명마를 길러내었다고 한다.

경족산과 길상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평지인데 북부에 경작지가 발달해 있어. 쌀 이의 보리·감자·인삼·야채 등이 주로 생산되고 특히 배추와 김이 유명하다. 온수리에서 최근 온천이 개발되고 있다.

주요 사적 및 명승지로는 경족산성, 전등사, 이규보(李奎報) 묘소 등이 있다.

[길상면 제보자]

온수리 칠보상회, 이기홍, 남. 56세.

1991.5.9. 강혜선, 사진실, 황재문, 이선재, 손금주 조사

온수리의 마을 이장의 추천으로 찾아간 사람이다. 원래 경기도 파주 출신인데 서울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고 6년 전에 이곳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그 전에도 강화에 자주 들렀고 아는 사람이 많아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였다.

현재는 ‘칠보상회’라는 음식점을 전동사 아래에서 경영하고 있는데 주로 강화도의 각종 지명에 관한 유래담을 구연하였다. 전동사에 찾아온 관광객

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해줄 거리를 찾다가 알게 된 것이 많다고 했다. 지방의회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고 하는데 발음이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구연해 나갔다.

〈선돌목 유래담〉

선돌목이는 그 전에 그 선돌이라는 선업을 하는 사람이 임금님을 모시고 인제 강화로 피신을 하는데 저작에서, 저 인천 쪽에서 올라오다 보며는 산이 꽉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임금의 신하가

“이놈아. 너 지금 피난가는 게 아니라 산이 이렇게 꽉 막혀 있는데, 너 이거 지금 임금님을 죽일려고 가지 못 할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선돌이가)

“아닙니다.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인제 못 밟은 거라. 그래 인제 그기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선돌이란 사람을 극형에 처한 거야. 그 자리에서 그냥 사형을.

“제가 죄고 죽음의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할 게 있다.”

그래 인제 “뭐냐?” 그러니까, 배에 그 물을 떠서 배에 싣고 쓰는 표주박 그런 게 있잖아. 그 박을 띄워놓으면 서,

“이 박 가는 데로만 따라 올라가시면 임금님은 사십니다.”

그러는거야. 그러니깐 그 처형을 시켜놨으니깐 최종적으로 ‘한 번 들어보자’ 그래 가지고 박을 띄워논거야. 박

이 물결 따라 올라 가지 않겠어. 밀물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보니깐 역시 배가 나갈 수 있는 길이더러 이거야.

그래서 선돌이가 거기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참 ‘아까운 사람 죽였다.’ 그래서 선돌이, 그 다음에다가 묘를 세웠다 그거야. 선돌이가 그 인제 뭐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 사형 집행된 날짜가 되면 그 무지하게 둘풍을 몰고 사람이 그 무지하게 추워요. 그때는. 그 ‘선돌이 추위’라고 그 강화에서 아주 유명하다고. 그 양반 돌아간 지 그 일주일 전후로 해서 무지하게 추운 날이 한번 지나간다고. (조사자: 예, 그런데 그게 언제 끌입니까?) 그래 근데, 그건 잘 모르지.

III. 강화군 양도면

〔조사마을: 양도면(良道面)〕

군의 서남부에 위치한 면으로 면적 35.1km², 인구 5,000여명. 단소재지는 하일리이다. 면 중앙부에 진강산이 있으며, 그 여백이 사방으로 뻗어 구릉을 이룬다. 서북 해안지대 및 남부에 비교적 넓은 평야가 발달하였다. 진강산 남쪽 기슭은 고려시대 이래 유명한 진강목장이 있다. 주요농산물로는 쌀·콩·보리·감자·인삼이다. 문화재로는 고려 최종왕릉인 석문, 고려

원종의 비 순경태후의 능인 가릉, 고려 고종의 능인 곤릉 등이 있다.

[양도면 제보자]

조산 2리, 김영례, 여. 72세.

1991.5.9, 이인경, 송성옥, 조윤주,
장대철, 정한기 조사

조산 2리에 시집온 후 계속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갓난아이였을 때 소독약을 잘못 뒤집어쓴 탓에 설명 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매우 속상해 하였다. 성질이 급한 탓에 말이 무척 빠르고 곧잘 말의 끝을 흐려버리곤 하여 이야기를 채록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조사는 주위 사람의 소개로 조사자들이 그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이루어졌다. 제보자는 비교적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으며, 이야기를 상당히 길게 구연하고 있어서 유능한 화자로서 기본적인 조선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설화 12편을 구연하였다.

○ 설화

- 김영례 : 1. 해와 달이 된 오누이
2. 콩쥐 팔쥐 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조사자가 왜 수숫대가 빨간가를 묻자. 옆에 있던 청중 : 그러니까, 옛날에 수숫대가 끝이 왜 빨갛나?〉

그거 이렇게 됐대요. 그거 얘기를 한 매디 해야겠구먼. 저기 나 쪼꼬마서 다 들은 말이니깐두루.

그거이가. 그전에 어머이가 훌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오누이를 데리고 서 훌로 사는데, 이 할머이가 삼베를 잘 엣대. 삼베라면 알겄소? (조사자 : 예. 알죠.) 저기, 삼 삼아서, 삼 삼아서 그걸 이여 가지고서 그걸 매는데. 이 할머이가 삼베를 잘 매니깐두루 부자집 장갓집에서 메밀묵을 췄 가지구서는. 이 할머이가 인제 불을 매지맞게 캐놓구서는 인제 그 삼베 맨 거야. 나도 전 봤어. 이 밀구녕에다 매지맺게를 잔뜩 펴놓구서는 인제 저길 허는 거야.

그래서 삼베를 엣는데, 오라 그래서 삼베를 매니까는. 그 오누이 그걸 놓고는 맨 날 삼베를 매려 땅겼는데, 한 날은 메밀묵을 한 합박을 이구서는 <목소리를 길게 빼어서> 고불꼬불 산고개를 인자 넘어오는 거랴. 그 아일 둘을 두구선.

그래 거 메밀묵을 그걸 한 합박을 이구 인제 아이들 줄거라고 이구 오니깐두루, <목소리에 변화 없이 할머니와 호랑이의 대화를 간접화법으로 계속 구연하였다.> ‘할멈 할멈 어디 갔다 오냐’ 구 그러니까, 호랑이가. <조사자 : 호랑이가요?> 응, 호랑이가. 호랑이가 ‘할멈 할멈 어디 갔다 오내’니까는, ‘부잣집에 장갓집에 가서, 저기 삼베를 매구선 오는거’ 그러니까는 ‘할멈, 그게 뭐냐구’—이 호랑이가 도심을 한 거지, 사람으로 변색을 해가지구.—그러니까는 ‘이건 메밀묵이라’ 그러니까는 두루, <목소리에 변화 없이 매우 빠르고 낮은 말투로> ‘할멈 할멈 그거 한 덩

어리만 나 주던 안 잡아먹지' 그러더 라. 그러니깐 이제 그걸 한 덩어리를 줬대.

한 덩어리를 주고서는 인제. 또 이 구 오니까. 또 그놈의 그게 또 앞장을 서서 또 가 있는거지. (조사자 : 호랑 이가요?) 그렇지. 그 할머이보다 먼저 가는거지. <이후의 부분은 매우 빠른 말투로 급하게 구연하여서 채록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도 고개를 넘 어가시 또 거 가 앉아서 또 그러니까 는. 또 한 덩어리를 주니깐 두루 안 잡아먹는다 해서 또 한 덩어리를 주니깐 두루.

그래. 그걸 인제 가지고 인제, 옛 덩어리 안 남았는데 그걸 가지구 가는 데, 그 고개마다—그놈으 고개는 또 그렇게 많았더란지—. 밤에 그걸 이구 넘어가니깐 두루. 낭중에는 웃드래요. 서너 덩어리, 그, 아이…<너무 뻘라서 청취곤란>…서너 덩어리를 인제 주어서 인제 가지고 아이들 준다고 가지고 오니깐, 그걸 마저, 시(세)고개를 넘 어선 마저 주고 오니깐 두루. 그때는 할멈을 안 잡아먹었더니, 짓을, 시 덩 어리를 마저 주고 오니까는 시 고개를 넘어서 마저 주고 오니깐 두루. 그때는 이 할매를 잡아먹었대 많아. 낭중에는.

다 이제 목을 주니까는 다 잡아먹고 는 그 옷을 죄—다 입구서는 이 아이 네, 죄 그 사람네 집으로 간거야. 가 니깐 두루 이 아이들이 점굴어서 밤이 야실해서, 죄 <감정을 넣어서 길게 빼어> 어매—오기만을 기달리고 하는데,

오걸 않으니까 두 아이 오누이가 문을 닫아 걸고 있는데, 와서 문을 잡아뗐 기더야.

잡아뗐기더야. 그러니까는. <이후의 부분은 역시 매우 빠른 말투로 급하게 구연.> '아가야… 아가야 문 열어라. 왜 문을 닫아 걸었느냐고, 엄마는 어떡하 라고 문을 닫아 걸었느냐'고 그러니 까는.

그리구 하니깐 벌써 이상하더래야, —이 아이들도, 그래 벌써 하늘에서 낸 자식들이지, 예같이. —그러니깐 찬 구녀을 이렇게 한데 '엄—마나' 그리 니깐. '엄마다. 노이 엄마다 너는 인 젠 내 목소리도 잊었느냐' 그리구 하니 깐 두루, '그래 어무이 손을 내밀라' 구 그리드래. 손을 내밀라 그리니깐 그 어무이, 그 호랭이가 손구락을 이렇게 내미니깐, 여기를 만져 보니깐 맨 텔 이드래거든? —호랭이 텔 있잖아? —호랭이, 맨 호랭이 텔이니깐 두루, 이 아이들이 만지면서 '엄마 엄마 어제 이리 맨 텔복생이요, 엄마 텔복생이요' 하니깐. '으噜噜—일 배 매서 이렇게 그냥 풀이 굽어서 이렇게 복신복 신하다' 그러더야. 그러니까는, '아유 그래도 엄마 아닌데 자꾸 그러니까는 '그—양 문만 열어 달라고' 그냥 그리 니깐 할 수 없이 열어 줬대.

열어주니깐 두루 영래 없이 즈이 어매 옷을 입고 옷을 입고 웃드래거든? 옷 을 입고 와니깐 두루 굴매는, (잠간 휴지) 어서 자라구 그러드라. 자라 그러 는데 이 아이들이 예감이, 암—만해도

—잘 것 같질 않더랴, 달르더랴, 즈이
어머이가 그냥 아니구 호랭이… 그 뒤
그 아이들도 다 하늘에서 낸 아이들이
구, 다 거시기 하나간두루, 그래서 그
냥 못 자 갖구서는 <매우 빠르게 구연
하는 바람에 발음이 부정확> 오누이가
인제 전년방에서 인제…

낭중에는, 이놈의 아이들을 잡아먹
을까 하드래는구만. 밤중이 지나가니
깐, 잡아먹으려구 하니깐, 이 아이들
이 그냥, 그 오누이가 ‘우리가 있다간,
저 거이 호랭이라고, 우리 엄말 잡아
먹고 호랭이가 저거 탈을 썼으니깐두루,
나가자구’ 나가자구 그리구서는
그냥에 나가니깐두루, 거시기 그 마당
에 가 무슨 큰…느티나무래나 무슨 낭
구가 있대요. 거기가 있는 느티나무가
…, 무슨 대나문가 느티나문가, 올라
가 있는데, 거길 올라갔다.

거기루 올라가니깐 <매우 빠르게 말
끌을 흐리며> 이건 다당께 가닌깐, 이
전 무슨 크—은 굴우물이 굴우물이 그
있으니깐, 이통계 그 비쳤을 게 아냐?
물에가? 그 아이 둘이 올라가 비쳤으
니깐두루. 비치니깐두루, ‘조리루 건
질랴, 합박으로 전질랴?’ 그러더랴.
그 우물을 디다 보면선. ‘느이들은 거
길 으뚱개 들어갔나? 조—리로 전질
랴? 합박으로 전질랴?’ 그리니깐두
루, 이 아이들이 가만히 있었으믄 으
뚱개…깔깔 웃었대는구만. 그리니깐
이렇게 쳐다보드라. 그러더니 <목소리
는 변함없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느들
은 어떻게 올라갔나? 거기를 어떻게

올라갔나? 아가야 아가야 그걸 어떻
게 올라갔나니깐’ 두루, <목소리를 다
시 여유있게 천천히 내여> ‘우리덜은
이 낭구를, 도끼를 갖다가 이리저리
썩어 가지구서는, 모진 테루 타고 올
라왔다’ 구 그러더래는구만.

그리니까는, 타구 올라갔다구 그리
니까는, <아주 급한 말투로> 이 호랭
이가 그냥, 가서는 그냥, 도끼를 갖다
가 이모저모 찍드래, 주구왕청(?).
이모저모 찍으니깐두루 언턱이 되잖
어? 언턱이 되니깐두루, 아이 이놈으
낭구가 그냥 거문거문거문 쓰러지게
되드라는구만? 그냥 쓰러지게 되구
그냥, 이 밑구녁이 그냥 다 찍어놓으
니까 그냥 넘어가드는, 거기 땅에 멀
어지는 날은 이 아이가 둘이, 오누이
가 집혀 먹게 되거든?

그래 노니깐두루 글째는. 그—냥,
‘하느님 하느님, 우리 오누일 살려주
실려무는, 새 동아줄에 새 방석을 나
려달라’ 구. ‘새 동아줄에 새 방석을
나려달라구, 우리 오누일 살리시려면
그 나려달라’ 구, 그—냥 하늘에다가
그냥, ‘사주사방에 그냥 산신령님네,
우릴 살려 달라’ 구 그리구, 그냥 재를
하구 절을 허구 그리구나니깐두루. 정
말 참, 새 동아줄에 새 방석을 나려
주더라. 그래, 새 방석 새 동아줄을
나려 주니깐. 이, 이 아이가 둘이 거
게 올라 앉아 했댜. 타구 나니깐 끌어
올리더라.

끌어 올려가지구서는. 하늘에다 용
왕님, 그냥 하느님이, ‘느이들은 소원

이냐?’ 그 오누이더러. 그러니까는, ‘소원이 무어냐?’ 그러니깐두루, 거시기 ‘나는 달이 되구 싶구 해가 되구 싶다구’ 그러더라. ‘해가 되구 달이 되구, 온 천지 하늘 다 밝히면서 보구 땅기는 그거이 된다’구 그러니까는, 거시기, 오라버이가, 누이가 이제 손위드라. 오라버이가 손아래니까는. 오라버이동생 하는 소리가, ‘누나는 해가 되라, 해가 되구, 나는 달이 되겠다.’ ‘달은 밤에만 뜨고 해는 낮에만 뜨는 거 아니냐? 나는 하반천일을 밟을 지키구. 누나는 하반천일을 해루, 낮을 해를 지켜라.’ 그러드라.

그래서 이제 해가 되구 달이 되는데, 거 왜 이렇게 해 마리다 보면 눈 서어서 못 마래다 보찮아? 그냥 요렇게 반짝반짝반짝 그 왜 햇발이 요렇게 마작마작마작하잖아? —이 석시가 수마늘질을 해서 만인간을 저를 화—악 보지 못 허게, 거 이렇게 햇발이 이렇게 마작마작마작하다. 그래서 누이는 거게 앉아 맨날 수마늘질을 하구, 아, 달은 좀 잘 뵈야? 하반천일이면, 암만 봐도 눈이 시나. 그래서, 그 오라버이는 달이 됐대요.

그래가지구서는 그통게 됐는데, 아이 호랭이가 그걸 타구 가는 거를 봤지? 보니깐두루.

〈목소리를 긁게 내어〉 하느—님! 하느—님! 날 살리시갔거든. 썩—은 동아줄에 썩—은 방석을 나려달라구’ 그러더라. 그래서 인저 썩은 방석에 썩은 방……저 그러찮아두 썩은 방석에

썩은 줄을 나려줄거지, 그 사람이, 하느님이 그거, 새겨 내려줄거야? —그러니깐 이제 그걸 나려주니깐, 썩은 동앗줄하구 썩은 방석을 나려주니까는, 반—쯤 올라가다가는 그냥, 동아줄이 탁! 끊어지잖아? 탁 끊어지니까는 그 왜, 해필이면 수솟대발에가 수솟구렁에가 뚱구녕에 썰렸대요. 수솟구렁에 뚱구녕이 썰려가지구, 호랑이 뚱구녕에서, 거 죄가 거 수수깡에 그거 물은 거라. 그래서 그 뱉전 거 호랑이 뚱구녕에 짓물이랴. 나 그거 하난 들었어.

그래서 그거 해필이면 왜, 응, 앉으면 바늘방석에 앉고, 뭐 깨끄렁이에 앉는다는 짜오루, 해필 반쯤 올라가다, 수솟구렁이가 썰려 뚫어졌다. 그러니까 나 그거이 하나님, 그 아이들 두 다 하늘에서 낸 거구, 벌써 그래서 그 호랑이 피랴, 시뻘전 거, 그렇게 그랬다고 그러면 걸…

〈콩쥐 팔쥐 이야기〉

(조사자 : 할머니 콩쥐 팔쥐 이야기 아세요?) 콩쥐 팔쥐는… 팔쥐어미가 나쁜 년이지 월. (조사자 : 왜 나쁜 지 좀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아니, 알면서 월? (조사자 : 가는 곳마다 다르니까요…강화도 이야기 하고 달라요)

콩쥐 팔쥐는, 팔쥐 어미이는 서모고, 콩쥐는 먼저 난 어머인데, 그냥 팔쥐를 데리고 언제 어디를 가든지 가면, 배를 하루 한 가마니를 갈아서 쟁어놓으라고 하고 갔대야. 가만히 콩쥐가 그냥, <갑자기 기억이 난듯이 황급히

목소리를 바꾸어〉 아, 이거 이렇게 해야겠구먼.

콩쥐는 나무호미를 주고 팔쥐는 쇠호미를 주는데 나무호미는 금방 부러지잖아. <조사자: 예> 그런데 콩쥐더러는

“소당〈솔〉소리가 나면 밥 먹으려 들어오너라.”

팔쥐더러는

“굴뚝에 연기 나면 들어오너라.”
—아, 굴뚝에 연기나는 건 얼련 알지. 소당소리는 가마솥에서 가만히 들어야지, 알아? 밭에서? <조사자: 그렇죠>—그러니깐두루 시간이 될 때까지 그냥...굴뚝에서 연기가 뻔치니깐두루, 팔쥐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아주 빨리하여〉

“아이쿠! 굴뚝에서 연기 난다. 밥 먹으라 들어가자!”

이놈의 콩쥐는 죄어미가 소당소리가 나면 들어오겠는데 어느 때 소당소리가 나는지 아나? <조사자: 모르죠>

그래서는 인제 그걸 인제 밭을 매는데 나무호미가 뚝 부러지더라네. 그냥 두 다리를 뻗고서 밭에 앉아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우니까. 하늘에서 선녀가 나려오더라, 선녀가 나려서

“아가야 너는 왜 우냐?”

하니까 ‘나는 호미를, 이 호미를 부려 뜨렸으니 이 호미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다.’고. ‘그러냐’고. 그리고 선 쇠호미를 주더래야. 쇠호미를 쳤는데 이놈의 해가 다 가도록 소당소리를 들어 야지. 소당소리를 못 듣

고서는 해가 다갔는데, 들어가니깐두루 서모라는 어머이가 밥을 제대로 먹이지도 않지, 그랬는데. 인제 이제 한날은 또 잔치를 보러 잔다고 그리구선 잔치를 보러 잔다 그리고, 어어 잔치를 보러 잔다고서는

“너 이 베 두가마를 다~ 갈아서 꿩 어라”

고 하더래야.

“아휴! 이 두가마를 어떻게 다 쟁나! 다 쟁나!”

하고서 그냥 한탄을 하고 앉아서 우니까, 새들이 하늘에서 그냥 떼가 되어서 날아오더래야. <조사자: 새가요?> 응. 새가. 날아다니는 새가 그냥 한 떼가 날아와서는 그걸 죄 까놓더래야 입으로. 그 죄 어머이가 다 날려보낸거야. 하늘에서. 다 까서 날려보내고 까놓으니깐두루 화 불려 갔다 불려 오면, 다 하늘로 올라가고. 하얗게 그냥 쌀이 인제 되었지 되어가지고 다 부어놓고…,

인저 그러구는 그렇게 해놓고는, 그이튿날은 또, 물을 또 밀빠진 득에다 한통을 길어다 부으라고 하더래야, 「밀빠진 득에다가 물 길어다 붓기」란 말이 있잖아? <조사자: 예>—그걸 길어다 암만 들어다 췄도 췄도 쏟아지고 짹 쏟아지구 그래서 그냥 부엌바닥에 가 철퍼덕 앉아서 <목소리의 변화 없이 말을 아주 빨리하여> ‘암만 길어다 췄도 이놈의 물은 어디로 들어가나’하고 엉엉 앉아 우니깐두루, 큰 두꺼비가 하나 나오면서 거기가 옆드리드라.

“여기 내가 열드릴 헤니 물 길어다 부어라.”

하니깐 물을 하나 길어다가 거기다 부으니깐 안 새드태야. 그렇게 해 놓고는 제어미들이 갔다간 그 이튿날은 왔는데,

“너는 어떻게...”

〈목소리를 마꾸어서〉—그 애미년이 그 딸년을 자꾸 잡을려는 거야. —

‘어떻게 현거냐’니깐두루, 이 딸이 그런 얘기를 쳐 하니깐, ‘배를 어떻게 해서 다 쟁었느냐’ 그런 얘기를 하니깐 ‘그려냐’고.

그 이 틀날은

“나 잔치를 보려 가니간, 꿀취를 헤리고 잔치를 보려 가니깐두루, 너도 이 따가 오너라!”

그리고 가더래야. 그러니까는 자~ 입고 갈 옷이 아무 것도 없지, 그러니까는 그냥 잔치는 보려 가야겠고 그러니까는, 그냥 엉엉 앓아서 부엌 바닥에 앓아서 엉엉 우니깐두루 하늘에서 선 너가 나려오더니,

“애! 왜 그렇게 우냐?”

그래더라나.

“나는 잔치를 보려 가야 되는데 입고 갈 옷이 없어서 이렇게 앓아서 올어요.” 그러니까. ‘그려냐’ 그리고서는 비단옷을,—〈목소리에 힘을 주어서 강조하듯이〉 참 지금이 비단옷이지 그 때는 무슨 비단옷이야? 〈조사자: 예〉—정말 비단옷을 좋은 걸루 한 벌 갖다 주면서

“이걸 입고서 올라가라”

그걸 입고 이제 가니깐두루 이 팔취가 벌써 웃 입고 온 것을 보니깐 불안해서 지랄하는 거 아냐? 〈조사자: 예〉 그냥 죄어미더러 그냥 ‘저 콩쥐는 저렇게 웃을 좋은 걸 입고 왔다’고 애미하고 그냥 팔취하고 서로 이제 거시기 하고 있는데, 저기 두는 연못이가 큰 거 있는데,

“언니 목욕하러 가자!”고

목욕하러 가자구 하니깐두루 〈나직한 목소리로〉

“싫어, 안 가, 싫어, 안 가.”

하니깐두루 〈아주 애원조로〉

“언니~ 가! 가! 나하구 같이 가, 같이 가!”

그리고서는 제 언니를 고장 꼬장... 한 살 위라더구만 팔취하고 콩쥐하고.

그래서 이제 입구서 가니깐두루 어찌 끌어 잡아당기는지 제 어미도 그냥 가라고 해서 갔더니. 목욕하러 들어가서 웃을 벗어서 빼...아냥 웃도 벗어서...웃을 벗어서 놓고서는 나왔는데, 거기다선 팔취가 떠밀더래요. 〈조사자: 어머나 저년!〉 그냥 콩쥐를, 팔취년이 그걸 웃을 입으려고, 그걸 웃을 입으려고, 그걸 입고서는 허리끈을 확맹겨갖고...미니깐 그 안에서 그냥 천년 만년 돼서 죽었지, 콩쥐가.

콩쥐가 이제 죽고나니깐두루, 〈목소리를 마꾸어 진지하게〉—그 옛날이 야기 들어보면 다 저... 세상에... 어! 〈갑자기 생각이 난듯이〉 고무신 한 짹이 떨어졌대, 올라가고선 어딜로 갔는지. 고무신 한 짹을, 살내화 고무신 한 짹을

그걸 가다가 떨어뜨렸는데, 임금 사람 이 그 고무신 한짝을 주었대던걸. 주

위 가지고 '이 밭에 맞는 거는 내 아내 를 삼겠다'고 주워 가지고 그랬는데, 이 사람도 다 얘기를 들었겠지 뭐.

이 놈의 팔취가 그 사람 그 콩쥐를 물에 며밀어서 죽었으니깐 두루, 팔취 가 콩쥐옷을 다 입은 거야. 다 주워 입 고서는 그리고나서는, 팔취하고 죄 어 미하고 이제 거...현데, 그렇게 그냥 연못, 연못에선 그냥 그렇게 연못 꽃 이 찬란하게 그냥 함박꽃이 동아메만 한 것이 떠있더래야. 떠 있으니깐 두루 그 임금이

"저건 무슨 꽃이냐?"고.

'저건 무슨 꽃이냐?' 그러니깐 두루 유명한 꽃이라고 했는데, 이 선발은 다 아무적거나 신발 맞은 사람이 없더래 는구만. 그래 가지고서는 부하들 보고

"저 꽃을 건져라! 갈구대로 이렇게 건져라!"

그러니깐 어찌 꽃이 찬란한지 좋으니 까는 건져다가는 저의 집에다가 났더 래야.

그런데 <목소리를 바꾸어서> 이 팔취가... 그 임금하고 이제 이 팔취가 살았대. —참 내가 말도 참 뒤하네— 그 래 가지고 살았는데 팔취가 이제 그 콩쥐 옷을 다 입었으니까, 이제 밥을 이렇게 먹으니깐 콩취가 혼이...<급히 설명 할 필요를 느끼는 듯 말을 빨리하여> 그걸 안에 갖다가 모셔놨대요. 연못꽃 을 이제 안에다 모셔놓고는 밥을 먹으 면, 콩취가 하는 혼전이 하는 소리가

<목소리를 나즈막하게 내여 혼잣말하는 듯이>

"아이구! 젓갈 바뀐 줄은 알아도 여편네 바뀐 줄은 몰르나? 몰를나?"
그러더래. 밥 먹을 쳐마다. <조사자:>
무엇이라고요? 무엇이 바뀐 줄은 몰라
도?> 거시기 "여편네 바뀐 줄은 몰라
도 젓갈 바뀐 줄은 아나?"

항상 젓갈을 바꿔서 놓더래. 거꾸로 하나 놓고, 바로 하나 놓고. 그럭하니 까는, 그때가주서는 콩취가 다 그렇 게 한거야. 혼이. 콩취가 젓가락을, 콩취가 이제 혼이 이렇게 만들은거야.
어떡하든지 이 임금이 없으면 주안상을 그렇게 차려 놓더래. '이상도스럽다' 팔취도 은근히 '이상스럽다.' 그저 한사코 그저

"아유! 젓갈 바뀐 줄은 알아도 여편네 바뀐 줄은 모르나? 그래도 그걸 먹나?"

한날은 '이상도스럽다 이상스럽다'

그런데 팔취가 이렇게 얼굴이 벌겼 게 되는데, 팔취가 얼굴이 벌겄잖아?
<조사자들: 아! 예> 뺨전 팥이 시뻘 정잖아?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하고 그러니까는'

"팔취는 왜 그렇게, 너는 그렇게 맨 날 니 살이 아니고 그러냐?"

그러니까는, '팔취가 돼서 벌개서 그렇다'고 팔취가 그더더랴. 암만해도 예감이 달리고 그런디, 그때 또 그 소리하고 그래서..., 그 때는 이게 콩취로만 알고서 그 임금이 사는건데, 그러니까는... 이상스러워...<말소리를 분

영치 않게 뒷풀을 흐려서 구연하여 청
취가 곤란〉 연못 그 꽃을 갖다가, 방
에다 놓은 것을 갖다 잡고 헤치니깐두
루 혼이, 무슨…한 색씨가 나오더랴.
〈조사자 : 꽃에서요?〉 응, 꽃에서 그
래서

“너는 사람이나 짐승이냐?”

그랬디야. 그 꽃을 보고선, 쪼꼬마니
사람 형체가 나오니깐,

“사람이나 짐승이냐?”

그러니깐두루 물째는 임금더리 하는
소리가, 〈목소리에 변화가 없이〉 ‘나
는 콩쥐다.’ ‘그럼 콩쥐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깐두루, 그땐 바른 말
을 한거지. 그 꽃이 그렇게 인제. ‘나
는 팔쥐하고 목욕을 하러 갔다가 팔쥐
가 연못에서 해서 내 옷을 다 입고, 그
래서 내가 죽은 혼인네 너무 원통하고
원통해서 내가 연못에 둥실둥실 꽃이
되어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꽃에 환생
을 하고 있다.’고 ‘내가 젖갈을 향상

한 짹을 바꿔 놓는다. 그런데 임금은
밥상 받을 때마다 「여편네 바뀐 줄은
몰라도 젖갈 바뀐 줄은 아느냐?」하고
항상 그 소리 안 하더냐?’고. ‘그랬
다.’고. 그때 가지고서는 ‘그 콩쥐가
니가 정말 콩쥐냐?’고 ‘그렇다.’고,
‘신발을 신어 봐라!’하니깐 꼭 맞거
던.—그러니깐 도로 빙상 〈환생이란
의미인듯〉 한거야, 이 새악시가. 너무
원통해 가지고 콩쥐가 빙상을 헤가지고
도로 사람이 된거야.—

그때는 이 저기 임금 부하가 ‘이거
는 살려서 안 되겠다.’고 하고서는 그
냥 어머니하고 팔쥐 그 년을 둘에 쓸
어 박았대던걸. 그때 가지고 콩쥐는 그
거이 도로 임금의 샤시가 됐대던걸.

그때 나 그거이 다 쪼꼬매서 들은
소리야. 〈조사자 : 누구한테요?〉 응?
어른들한테, (할머니의 어머니한테?)
저기 남자들.

현대 작가반 학술답사 보고서

1. 결단식 및 편성

1988년, 1990년에 이어 세번째로 시도된 현대작가반의 학술답사는 1991. 4. 25 14:00에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예비모임을 겸한 결단식을 가지고 조편성 및 임무분담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학술답사의 대상작가인 이병기, 채만식의 문학활동과, 대상지역인 전북 익산과 군산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대작가반의 편성, 조사대상(작가), 조사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편성

지도교수: 김윤식, 오세영, 조남현,
권영민

담당조교: 송기한

참가자: 박사과정 수료자 2명과 석사과정 현대문학 전공자 13명, 서경석, 한형구(이상 박사과정 수료), 정선배, 배경렬, 권보드래, 강삼희, 김덕한, 김동식, 김미경, 김진우, 박형우, 전은실, 이병호, 호태이, 다가요(이상 석사과정)

답사기간

1990. 5. 10~5. 12(2박 3일)

조사대상 작가

- (1) 이병기(1891~1968)
- (2) 채만식(1902~1950)

조사대상지역

- (1) 전북 익산군 여산면 원수리 일대
- (2) 전북 군산시 일대

II. 본조사 및 일정

5월 10일 서울역에 집결. 당일 오후 1시 충남 논산에 도착. 준비된 차편을 이용하여 전북 익산군의 가람 이병기 선생 생가를 방문. 가람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리기 위해서 오세영 선생님께서 가람 선생의 시세계에 대한 특강을, 권영민 선생님께서는 가람 선생과 관련된 학창 시절의 추억을 말씀해 주셨다. 광주에서 1박.

5월 11일에는 전북 옥구군 임파면 웅내리(舊 임파군 군내리 동상리)의 채만식 생가를 방문한 뒤, 이어서 전북 옥구군 임파면 노산리 소재의 채만식 묘소를 참배했다. 차편을 이용하여 군산시내로 들어와서는, 중앙공원으로 가서 군산시내를 끊어보며 『탁류』에 나타나는 군산의 공간적 지표와 실제 군산시의 지리의 관련성에 대한 김윤식 선생님과 조남현 선생님의 특강을 들었다.

당일 오후에는 군산에서 여관에 투숙하여 저녁식사 후 본 답사의 대상작가인 이병기와 채만식에 대한 답사활동을 토론하고 정리하는 자체 평가모임을 가졌다.

III. 문학토론회 내용

5월 11일 저녁에 있었던 문학토론회에서는 이병기의 시세계에 대한 오세영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고 송기한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람 이병기는 1920년대 초반부터 시조부흥운동에 가담하면서 전통시가 형태인 시조의 현대화작업에 앞장선 바 있다. 그의 작품은 관념과 생경한 말씨를 걸러내고 말의 결을 이용한 가락과 선명한 심상이 대치되어 나타난다. 제재면에 있어서도 자연과 채색적인 입장을 취한 인간사 주변의 것을 택하고 있다. 시조부흥운동에 있어서 이병기의 공적은 작품과 더불어 그의 이론적인 업적에 있다고 할 것인데, 학문적인 연구에 국한되지 않고 일종의 창작방법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는 등장초기부터 시조의 시어에 변격을 도입하고 잇시 조나 사설시조에 관심을 가지는 등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시조를 혁신하자>(<동아일보> 32.1.23~2.4)에서 나타난다. 그의 주장은 낡은 구투를 버리고 1) 실감과 실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용어를 선별하여야 하며 2) 최재의 범위를 확장하여 3) 격조에 변화를 기할 것이며 4) 형식이나 형태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와 인식을 가질 것 등으로 요약된다. 이와같은 시조혁신론은 일부고전 시조가 지니는 폐습을 타파하고 현대 시로서의 시조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시조의 형식 자체가 지니는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서 연작시조론을 제창하기도 했다. 가

람의 시조 디학은 우리말이 빛어내는 느낌이나 격조를 가능한 살리는 방향에서 추구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매화와 난초를 다룬 그의 작품에서이다. 이는 어려서부터 한문과 한시에 익숙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이러한 가람의 정신이 문학사에 있어서 보다 의미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문장』으로서, 일제 강점기 말의 양대 정신적 지주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다.

한편 채만식에 대해서는 김윤식 선생님의 특강과 더불어 한형구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주제 발표는 주로 채만식의 전기적 사실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채만식은 1902년 전북 옥구군에서 채규섭의 7남 2녀 중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부친이 부농이었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3.1운동을 전후해서 중앙고보(1918~1922)를 다녔는데 3.1운동과 관련한 활동으로서 두드러진 것은 없다. 1922년 도일하여 와세다대학 부속 제일 와세다부속학원에 입학했으나 이듬해 귀국하고 만다. 1924년 단편 「세길로」를 『조선문단』에 발표하면서 등단, 1925년 이후 동아일보를 시작으로 기자생활을 하다가, 1936년부터는 직장을 그만두고 창작생활에 전념하였다. 『탁류』는 이 시기에 저출된 것이다. 작품이 해에 도움이 될 전기적 사항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1) 기자라는 직업에 오래 종사했다는 사실과 2) 성장기와는 달리 동경에서 귀국한 이후로는 가난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는 점이 특히 문제적이라 할 것이다. 1)과 관련해서는 기자라는 직업을 통해서 현실의 여러 측면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가난의 체험은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미두(米豆)로 물락하는 부호의 모습, 빈곤으로 방황하는 인텔리, 도시 및 농촌의 빈민상 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지적된다.

채만식과 관련된 이후의 논의에서 핵심된 주제는 근대성의 문제였다. 일제강점기 하의 근대적 제도의 유입과 그 속에서의 삶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라는 점에서 답사단원 간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후로 근대성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M. 전체 평가회 및 해단식

5월 15일 세미나실에서 전체 평가회 및 해단식을 가짐.

방언 반 학술답사 보고서

1. 답사 개요

(1) 기간 : 1991년 5월 8일 ~ 5월 11일
(3박 4일)

(2) 지역 : 경기도 강화군 화도면 일대

(3) 목적 : 조사지역의 방언을 문법과 어미 활용면에서 조사

(4) 참가인원 : 최명옥 선생님 외 5명

(5) 준비과정 : 참가자들이 3회의 모임을 통해 방언조사 질문지 사용방법과 음성전사 방법을 익혔다.

2. 현지조사 과정

(1) 조사단 구성

지도교수 : 최명옥 선생님

조교 : 정승철

1조 : 최명옥(지도교수), 유필재(학

4)

2조 : 정승철(조교), 이혁화(석 1)

3조 : 김홍선(석 1), 채현식(석 1)

(2) 조사지점 및 체보자

ㄱ. 경기도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1조 : 한대희(남 72)

ㄴ. 경기도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2조 : 박희철(남 70)

ㄷ. 경기도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3조 : 박영선(남 63)

(3) 질문지

한국방언조사질문지(198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 5권(문법편)
활용조사표

(4) 기록

ㄱ. 조사항목의 방언형을 음성기호로 전사하고 동시에 테이프에 녹음했다.

ㄴ. 음성전사에 사용한 기호는 다음과 같다.

① 모음

i	ü	ɨ	u
e	ö	ə	o
ɛ		a	

<단모음>

i:	ü:	ɨ:	u:
e:	ö:	ə:	o:
ɛ:		a:	

<장모음>

② 반모음 w y

③ 자음

p	t	c	k
p'	t'	c'	k'
pʰ	tʰ	cʰ	kʰ
	s		h
	s'		
m	n		ŋ
	l		

ㄷ. 위의 전사기호 외에 다음과 같은 기호가 사용되었다.

① p, t, c, k의 유성음 전사에는 각각 b, d, j, g가 사용되었다.

② s, n의 구개음 전사에는 각각 l, ŋ가 사용되었다.

③ 1의 탄설음 전사에는 r이 사용되었다.

④ 엑센트가 인식되는 경우에는 기호 위에 '표시를 하였다.

(5) 조사일정

ㄱ. 5월 8일 오후 : 서울 출발

ㄴ. 5월 8일 오후 ~ 5월 10일 오후 : 조별로 방언조사 진행

ㄷ. 5월 11일 오전 : 마니산 등반

ㄹ. 5월 11일 오후 : 서울 도착

3. 결과 정리

(1) 정리 : 각조의 조사결과를 모아 활용조사표의 순서대로 정리했다.

(2) 결과 보고 : 1991년 5월 28일 1991학년도 국어국문학과 학술답사 결과 보고 및 해단식에서 답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3)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번호	조사형태	-n(nin)da	-ko	-Ato	-imyən	영 체
001	의-					
002	의-	熱 塞, 防	magninda k'ənninda	makk'u k'æk'u	magadú k'æk'ədu	magára k'æk'ara
003	의-					
004	의-					
005	신-		sin:ninda	siŋk'u	sinidú	sinik'ára
006	듣-	tinninda	titk'u			tirara
007	듣-	t'inninda	t'ik'u			t'idara
008	단-					
009	같-		yak'u			
010	할-					
011	춘-					
012	날-					
013	운-	narinda	nariigo	u:nda	u:lman	urára
014	일-		ulgu	irinda		irara
015	언-		irigu	a:nda		
016	감-		a gu	a:nda		kámára
017	널-		kapk'o	ka:minda		nómára
018	숨-		na:jk'o	nemninda		sumára
019	입-		su:jk'u	su:minda		ibára
020	습-		ik'u			
021	습-		swipt'a			
022	습-		ko:pt'a			
023	길-		nu:nda			
024	길-		ki:minda			
			mi:pt'a			

번호	조사형태	-n(nin)da	-ko	-Ato	-imyən	별명
025	덮-	təmninda	təpk' u	təpk'umán	təpk'era	
026	높-	nɔpt'a	nok'u			
027	심-	sip'uda	sik'u			
028	짓-	cinda	cik' u			
029	붓-	puında	puk' u			
030	알-	anda	algu			
031	낫-	na:nında	nak'o			
032	웃-	unnında	uk'u			
033	짓-	cinnında	cik'o			
034	쳇-	cənnında	cətik'o			
035	늦-	nit'a	nik'o	niimyən	k'oijmyən	
036	꼿-	k'onnında	k'otk'o		c'otk'era	
037	美貌-	c'onnında	c'otk'o		c'oc'himyən	
038	쫓-	nannında	nak'o	naado		
039	쫑-	t'a:nnında	t'ak'o			
040	않-	a:nnında	a:dk'o			
041	많-	ma:nña	ma:jk'o			
042	切断-	k'innında	kijk'o	k'inimyən	k' inara	
043	切断-	kwénc'ant'a	kwenc'ajk'o			
044	품-	pakt'a	pak'o	palgimyən	ilgəra	
045	입-	ipnında	ik'o			
046	삶-	sa:mında	sa:jk'o		salmumyən	
047	煮-					
048	踏-	pa:mında	pa:jk'o		palbumyən	
					palbára	

번호	조사형태	-n(nin)da	-ko	-Ato	-imyən	-p̥	-g̥
049	尾-	t'ip'a	t'ip'k'o	t'i:bədə			
050	尾-	t'ullonda	t'ulk'o	t'urədə	t'urumyən		
051	尾-	a:llinda	a:lk'o	arədo	arimyən		
052	尾-	k'ullinda	k'ulk'o	k'urədo	k'urimyən	k'urəra	
053	尾-	tallinda	talk'o		tarimyən		
054	尾-						
055	尾-	up't'a	ip'k'o	ipsədo	ipsimyən		
056	尾-	kanda	kago		kamyən		
057	가-	c'ada	c'ago		c'amyan		
058	자-	handa	həgo	he:do	hamyən	he:ra	
059	하-	manda	ma:go	marado	marimyən	marara	
060	발-	sánدا	ségo		seməyən	séra	
061	사-	k'inda	k'igo		k'imyən	k'era	
062	لل-	s'inda	s'igo	s'ido	s'imyən		
063	ડ-	orinda	origo		orimyən		
064	ડ-	hirinda	hirigo		hirimyən		
065	ઉ-	pap'uda	pap'ugo		pap'umyən		
066	ઉ-	kop'uda	kop'ugo	wado	kop'umyən		
067	ઉ-	onda	ogo		omvən		
068	ઉ-	onda	ogo		onara		
069	ઉ-	ponda	pogo		pomvən	pōra	
070	ઉ-	s'onda	s'ogo		s'omvən	s'ōra	
071	ઉ-	k'unda	k'ugo		k'urəra	k'ura	
072	ઉ-	c'unda	c'ugo		c'umyən	c'bára	

번호	조사-형태	-n(nin)da	-ko	-Ato	-imyən	부	체
073	파우-	pʰiunda	pʰiugo	pak'wedo	pak'umyən	pʰiəra	
074	바구-	pak'unda	pak'ugo		kiumyən		
075	기-	ki:nda	ki:go		simyən		
076	시-	sida	sigu		cimyən	cera	
077	지-	cinda	cigu		imyən	yera	
078	이-	inda	igo			kyəndiəra	
079	견마-	kyaudinda	kyəndigo				
080	아나-	anida	anigó	aniredo			
081	비니-	pibinda	pribigo	pibyədo			
082	筚마-	mallinda	malligó	mallyədo			
083	기이-	k'inda	k'igo			masyəra	
084	나시-	masinda	masigo			sewəra	
085	세-	seunda	seungó			pierá	
086	비-	pinda	pigo			k'evara	
087	깨-	k'sunda	k'eugo			pʰogiyəra	
088	포개-	pʰoginda	pʰogigo			pʰiwara	
089	끼-	pʰiunda	pʰiugo			tudiriyəra	
090	두드리-	tudirinda	tudirigo			pʰiwedo	
091	커-	pʰiunda	pʰiugo			tweum yən	
092	커-	tweunda	tweugo			s'oymyən	
093	꺼-	s'oinda	s'oigo			s'oyəra	
094	꺼-	swenda	swego			swemyən	
095	꺼-	cwinda	cwigo			swiədo	
096	꺼-	swiunda	swiugo				

번호	조사부록	-n(nin)da	-ko	-Ato	-imyan	영어
097	회-	hida	higo	pok'ado	himyan	pok'ára
098	볶-	popninda	pok'o	is ədə	pok'imyan	is imyən
099	炒-	it'a	ik'o	anado	anara	anara
100	볶-	a:nindā	a:p'k'o	mурəда	murəra	murəra
101	볶-	munninda	mutk'o	mудəра	mudəra	mudəra
102	볶-	munninda	mutk'o	муткъяна	murimyən	murimyən
103	볶-	manninda	matk'o	маткъяна	matimyən	matimyən
104	볶-	pu:nida	pu:igo	пурадо	pulmyən	pulmyən
105	볶-	p'anda	p'algo	п'ардо	p'arimyan	p'arimyan
106	죽-	cugninda	cuk'o	корамъян	cugimyən	cugimyən
107	걸-	kænninda	kæ:tk'o	канумъян	karamyan	karamyan
108	걸-	kamunda	kamulgo	канулмъян	kamulmyən	kamulmyən
109	줄-	co:nda	co:lgō	s'irədo	s'irəra	s'irəra
110	줄-	s'inda	s'ilgo	камара	kamora	kamora
111	간-	ka:minda	ka:dk'o	тедимъен	tedimumyən	tedimumyən
112	간-	tædiminda	tædipk'o	ку:мъен	ku:mynən	ku:mynən
113	간-	kunda	ku:k'o	мугэвэде	mugeumyən	mugeumyən
114	무경-	mugəpt'i:a	mugak'o	и:адо	i:ra	i:ra
115	잇-	iunda	iugo	писадо	pisra	pisra
116	잇-	pinninda	pikk'o	көнедо	ni:ra	ni:ra
117	카방-	k'amata	k'əmək'o	на:до	ni:myan	ni:myan
118	방-	nənninda	na:k'o	әнедо	ənjimyən	ənjimyən
119	방-	ənjinda	ənjigo	ко:до	ко:мъен	komouyen
120	고-	ko:nda	ko:go	ковадо	kovara	kovara

번호	조사형	-n(nin)da	-ko	-Ato	-imyən	-kuc ^b animyən
121	귀-체-	厭 遷, 出	kuc ^b ant ^b a c ^b urinda	kuc ^b ap ^b k'o c ^b turigo	kuc ^b anado	
122	마-로-		makt'a	malgado	malgimyən	
123	부-		kōnginda	kulgədo	kongimyən	
124	한-		ku:k't'a	yalbado	kulgimyən	
125	한-		yalt'a		yalbumyən	
126	한-		s'inda		s'ilmeyən	
127	숨-		illinda		irimyən	
128	기-		hallinda	halt ^b ado	halt ^b imyən	
129	한-		c'a:ita	c'alk'o	c'albumyən	
130	술-	宿, 睡	no:lenda	no:llego	no:llemyən	
131	눌-라-		canda	cago	camyən	
132	자-		mot ^b anda	mot ^b ego	ca:ra	
133	못-하-	劣, 不能	morinda	mollado	morimyən	
134	포-르-	不知	ap ^b uda	ap ^b ugo	ap ^b umyən	
135	아-프-	痛	k'ida	k'ido	k'timyən	
136	코-	長 繩	k'onda	k'ogo	k'omiyən	
137	꼬-	繩	s'u:nda	s'ugo	s'umyən	
138	쑤-	繩索	mac ^b unda	mac ^b ugo	mac ^b wəra	
139	맞-추-	組合	tiunda	tiugo	tiwəra	
140	奚-우-	使溫	iunda	iugo	iiumyən	
141	이-	革	kalginda	kalgido	kalgimyən	
142	갈-기-	打	kidárina	kidullədo	kidullimyən	
143	기-나리-	待	s'eda	s'ego	s'emyən	
144	세-	強				

한국어	조사형태	-n(nin)da	-ko	-Ato	-imyən	-imyən	-p'eweyən
145	비-	p'eunda kiunda	p'eugo k'iugo	k'iweo twe:o	p'eumyən k'iiumyən	p'eumyən k'iiumyən	k'yera
146	거-	twe:da	twe:go	swiweo kalk'imeon	twe:mən swiumyən	swiweo kalk'imeon	kalk'hyəra
147	쳐-	swiunda	swiugo	swiweo kalk'imeon	twe:mən swiumyən	swiweo kalk'imeon	kalk'hyəra
148	쉬-	kalk'inda	kalk'igo	kilgado kikk'o	swiweo sakk'o	swiweo sakk'o	kilgəra
149	한-	kigninda	kigninda	se:k'ado	swiweo sakk'o	swiweo sakk'o	sək'əra
150	한-	segninda	segninda	məgado	swiweo makk'o	swiweo makk'o	məgra
151	쉽-	məgninda	məgninda	muk'ado	swiweo mukk'o	swiweo mukk'o	muk'əra
152	딱-	mugninda	mugninda	mukk'ado	swiweo mukk'o	swiweo mukk'o	mukk'əra
153	풀-	minninda	minninda	nulko	swiweo nulk'o	swiweo nulk'o	midəra
154	밀-	nurunda	nurunda	k'edalk'ado	pet'ado	pet'ado	nurimyən
155	눌-	k'edanninda	penninda	pekk'o	pet'ado	pet'ado	pet'hara
156	깨-	tind'a	tind'a	tilgo	tilmyən	tilmyən	tilara
157	별-	karilda	karilda	karilgo	kanilmən	kanilmən	kanilmən
158	들-	tadiminda	tadiminda	tadimk'o	tadimumyən	tadimumyən	tadimera
159	가-	c'upt'a	c'upt'a	c'upk'o	c'uumyən	c'uumyən	c'uumyən
160	다-	maryəp'a	maryəp'a	maryək'o	marimyən	marimyən	marimyən
161	춥-	puk'irep't'a	puk'irep't'a	puk'irak'o	parədo	parədo	parədo
162	바-	kak'apt'a	kak'apt'a	kak'akk'o	palgo	palgo	palgo
163	무고-	hullinda	hullinda	hulk'o	kip'ugo	kip'ugo	kip'ugo
164	기구-	pə:nda	pə:nda	pə:ndo	kip'uda	kip'uda	kip'uda
165	초-	-	-	-	ki:minnanda	ki:minnanda	ki:minnanda
166	별-	-	-	-	-	-	hult'əra
167	짚-	-	-	-	-	-	terəra
168	굿-	-	-	-	-	-	-

번호	조사 형태	-n(nin)da	-ko	-Ato	-imyən	-p̈	-p̈
169	黠-	penninda s'inninda	patk'o s'ik'o natk'o	pasədo s'icədo nacədo	pəsimyən s'ic̚imyən	pəsəra s'ic̚era	pəsəra
170	黠-	nat'a	ca:kk'o	ca:ra			
171	黠-	canninda	c'iugo	c'iwera			
172	黠-	c'iunda	co:k'o	cowado			
173	黠-	co:t'a	kirak'o	kireddo			
174	黠-	kirat'a	kakk'o	kalgara			
175	黠-	kapninda	ku:pk'o	kulmara			
176	黠-	kumninda	ta:mk'o	talmara			
177	黠-	talmat'a	selk'o	sərimyən			
178	黠-	sel't'a	ka:pk'o	karumyən			
179	黠-	kamninda	silk'o	sirimyən			
180	黠-	silt'a	kolk'o	korimyən			
181	黠-						
182	黠-						
183	만나-	mannanda	mannago	mannamyoñ			
184	누-	pu:ninda	pu:k'o	putumyən			
185	차-	c'anda	c'ago	c'amyən			
186	타-	t'anda	t'ago	t'amyən			
187	마르-	marinda	marigo	marimyən			
188	쓰-	s'ida	s'igo	s'emyən			
189	슬프-	slip'uda	slip'ugo	kip'umyən			
190	기쁘-	kip'uda	kip'ugo	moonymyən			
191	모으-	mounda	mougo	moara			
192	쏘-	s'onda	s'ogo	s'omoñ			

번호	조사형	-n(nin)da	-ko	-Ato	-imyən	부	부
193	주-	授與 使觸 飼育	cunda allinda k'iunda	cugo älligo k'iugo	cuedo ällyedo k'iwado	cuya ällyera kiwera	
194	열리-	因	kadunda	kadugo	kadwado	kadwera	
195	키우-	開拓	p'ienda	p'iego	pusyədo	pusyəra	
196	가두-	碎	pusinda	pusigo	nanumyən	nanuera	
197	거-	分	nanunda	nanugo	karyədo	karyera	
198	나누-	閉	karinda	karigo	mallyədo	mallyera	
199	나누-	使效	mallinda	malligo	swegimyən	swegyera	
200	거리-	欺	sweginda	swegigo	k'imyən	pewera	
201	말리-	捶	k'inda	k'igo	pimyən	tʰwimyən	
202	속이-	斬	peunda	peugo	koyədo	koimyən	
203	끼-	引	tʰwinda	tʰwigō	kellyədo	kellimyən	
204	베-	跳逃	koinda	koigo	meumyən	meumyən	
205	커-	溜			kidégymən	kidégymən	
206	뛰-	梭			tallemyən	tallemyən	
207	괴-	炫			k'ido	k'iera	
208	여위-	炫， 眞味			k'ido	k'ira	
209	걸리-	依支	mep'a	mpk'o	tallego	tallego	
210	걸-	撻	kidéginda	kidégigo	k'igo	koch'ego	
211	기여-	屁	tallenda	talligo	k'igo	nogago	
212	발여-	通	k'inda	k'inda	k'inda	koch'ego	
213	여-	改	koc'hinda	koc'higo	koc'higo	koch'ego	
214	여-	解	nogninda	nokk'o	nokk'o	nogago	
215	고치-						
216	여-						

번호	조사 접두사	-n(nin)da	-ko	-Ato	-imyən	-ff	첨
217	신-	戴 得	sillinda ə:nində p'ecokʰəda	silk'o ə:tk'o p'ecokʰego	sirədo ə:dədo p'ecokʰedo	sirimyən ə:dimyən p'ecokʰimyən	sirəra ə:dəra
218	언-	尖 鉤	nak'unda soñinda k'agninda	nak'ugo sok'o k'akk'o	nak'uədo sogado k'ak'ado	nak'wəra sogara k'ak'əra	
219	느니- 느-	釣 歎	punninda	puk'o	puredo		
220	속-	削					
221	각-	培					
222	느-	產卵					
223	슬-	媒煙					
224	그을리-						
225	월-	切斷	s'inda	s'irido	s'irimyən	s'irira	
226	빨-	遺粉	pa:nda	pa:do	paamyən	paara	
227	놓-	放盡	nonninda	nowado	nomyən	nowara	
228	파랑-	盡	p'arat'a	p'arak'o	p'aramyən		
229	걸-	並					
230	걸-	年少	cə:mkt'a	cə:mkt'o	cəlmədo		
231	걸-	異	tallida	tallido	tallimyən		
232	다르-	閉	caðgida	caðgido	caðgera		
233	참고-	汲	p'unda	p'əgo	p'əgo	p'əra	
234	프-	汲	t'inda	t'igo	t'əgo		
235	뜨-	浮	nunda	nugo	nugdo		
236	누-	浮					
237	거느-	尿					
238	썩우-	目，視					
239	거두-	爭	s'aunda kədunda	s'augo kaðugo	s'aumyən kədumyən	s'awəra kadwəra	
240	더럽-	收污					

부호	조사형	-n(ni)da	-ko	-Ato	-imyan	부	부
241	이-	제 시	ida	igo	imyan	이	이
242	표-	拂	k'illinda	k'ilk ^h o	k'itrimyən	igye	igye
243	이기-	勝	iginda	igigo	igimyən		
244	부시-	照	pusinda	pusigo	pusimyən		
245	자빠지-	終	cap'acinda				
246	일 으 키-	便	irik ^h inda				
247	다리-	顯	tarinda				
248	당기-	引	t'enginda				
249	벽 치-	捨		parigo	parimyən	paryera	paryera
250	벽 치-	損		perigo	humc ^h imyən	peryera	peryera
251	훔 치-	盜	humchinda		twemyən	weara	seyera
252	코 -	成	twenda	twedo		sok'ara	
253	와 -	暗	weinda	weigo		cilmyan	k'abullera
254	사구 -	交際	seginda	segigo			timurədo
255	매 -	肩負	mi:nda				curədo
256	숙 -	間引					
257	썩 -	腐	s'əgninda	s'agədo			
258	질 -	泥	cilda	cilgo			
259	까 훌 -	笑	k'aburinda	k'abullego			
260	길 -	長	ki:da				
261	드물 -	稀	timulda				
262	줄 -	縮	cu:nda				
263	심 -	植	si:minka				
264	쓰다辱 -	撻	s'idadiminda				

번호	조사형식	-u(nin)da	-ko	-Ato	-imyən	-e
265	사-부-	sanap't'a	təpk'o	teumyən		
266	부-	taupt'a	kabyapk'o	kabimyən		
267	가-별-	kalyapt'a		kap'təra		
268	균-	kamninda	cak'o	caimyən		
269	ჭ-	ca:nininda	tuk'əpk'o	tuk'əmyən		
270	두-점-	tuk'əpt'a		kənnimyən		
271	전-비-	kannanda	kənnigo	murimyən		
272	무-로-	murida	murigo			
273	분-지-르-	kwenhanda	kwenhago	kwenhəməyən		
274	권-체-	corinda	corigo	kwənhəra		
275	조-르-		peugo	coryəra		
276	배-우-	c'hinda	c'higo	pewəra		
277	치-	tarinda	tarigo	c'hara		
278	나-리-			taryəra		
279	부-비-					
280	이-리-					
281	그-리-	ki:rina	kirigo	kirimyən		
282	거-리-	cerinda	cerigo	cerimyən		
283	불-리-	pullinda	pulligo	pullimyən		
284	프-시-	t'isida	t'isigo	t'isimyən		
285	풀-이-	k'irinda	k'irigo	k'irimyən		
286	누-비-	nubinda	kongigo	kongimyən		
287	구-기-		nubigo	nubimyən		
288	구-기-		kugigo	kugimyən		

한국	조사-부-속	-n(nin)da	-ko	-Ato	-imyən	한국
비-	비-	pi:nda	pi:go	sik ^b yəgo	pi:myən	sik ^b yəra
식하-	식하-	t'inda	t'igo	ope:t'	sik ^b imyən	
빠-	빠-	meunda	meugo	meədo	t'imyən	
매-	매-	sinda	si:go		meumyən	meəera
쉬-	쉬-	t'winda	t'wigo		si:myən	
뛰-	뛰-	punninda	put ^b o	put ^b edo	t'wimyən	
급-	급-		titk'o	titk'edo	tidimyən	tidera
급-	급-	ta:mininda	tarjk'o	tamədo	tamumyən	tamera
업-	업-	emninda	ek'o		ebumyən	ebera
가렵-	가렵-	kaript'a	karipk'o	karyedo	karimyən	
빠져-	빠져-	t'arinda	t'arigo	t'aryedo	t'arimyən	t'aryera
여덟-	여덟-	edupt'a	edupk'o		eduumyən	
집-	집-	camininda	capk'o	cabado	cabumyən	cabara
차-	차-	c ^b anda	c ^b ago			
모자나-	모자나-	mocaranda				
부르-	부르-	pullinda	pulligo	t'arado	t'arimyən	
마르-	마르-	t'arinda	t'arigo		c'omyən	
쳐-	쳐-	c'o:nda	c'o:go	tuedo	tumyən	
두-	두-		tugo			tuera
겼기-	겼기-	wenginda	wengigo			
시키-	시키-	sik ^b inda	sik ^b igo		wegimyən	
지하-	지하-	cirinda	cirigo		sik ^b imyən	
먼저-	먼저-	tencinda	tencigo		tencimyən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번호	조사·형태	-n(nin)da	-ko	-Ato	-imyən	-pə	터
313	모이-	moinda	moigo	moyədo	moimyən	moyerə	
314	부지-	mañjinda	mañjigo	manjado	mañjimyən		
315	입身-	ip'inda	ip'igo	ip'yədo	ip'imyən		
316	체-	c'binda	c'eigo	c'oyədo	c'omiyən		
317	살-	sanda	sa:go	sarado	sa:lmeyən		
318	끌-	k'i:ada	k'ilgo	k'reado	k'i:lmeyən		
319	찌-	pit's'inda	pit's'igo	pit's'ilmyən	toumyən		
320	牖-	to:mañinda	to:kk'o	towado	towara		
321	啻-	simainda	s'ipk'o	s'ibedo	s'ibera		
322	비끄럽-	mak'irap'a	mak'irapk'o	mik'irredo			
323	옹-	tatañinda	ta:k'o	ta:ndo			
324	까-	k'anda	k'a:go	k'a:do			
325	갸름-	kyarimhəda	s'ago				
326	서-	s'ada	nurigo	nullido			
327	누르-	nurinda	tangigo	tagimyən			
328	답그-	tagienda	parigo	pallado			
329	빠르-	perida	c'ago	parimyən			
330	차-	c'ada	k'ubatirigo	c'almeyən			
331	구부리-	k'ubarinida		k'utberimyən			
332	弛-						
333	에우-	mi:ada	mi:go	mi:do	hai:myən		
334	가리-		karego	karedo	karemyən		
335	코시-						
336	내리-					naryəra	

번호	조사형	부호	-n(nin)da	-ko	-Ato	-imyən	부호	영역
337	치-	치-	c ^h irinda	angigo	oedo	eogimyən		
338	헝기-	헝기-	əgində	holligo	hollyədo	hollymən		
339	흔적-		hollinda	k'ict ^h igo	k'ic ^h edo	k'ic ^h imyən		
340	그치-		k'ict ^h inda	kenjigo	kənjedo	kenjimyən		
341	전지-		kenjinda	c ^h arigo	c ^h arado	c ^h arera		
342	차리-		c ^h arinda	na:jk'o	namumyən			
343	남-		na:mininda	musak' ^h o	musumyən			
344	무성-		mu:səp't ^h a	kurigo	kurimyən			
345	구르-		kuriada	mengilgo	məgilmeyən			
346	만들-		menginda	cokk'o	orimyən			
347	줍-		copt'a	nikk'o	nilgədo			
348	핥-		nikt'a	orido	sado			
349	做强-		orida	sagō	t'ardo			
350	사-	사-	sanda	t'arigo	ch'iwədo			
351	파르-		t'arinda	c ^h iugo	tallyədo			
352	치우-		c ^h iunda	tac ^h igo	tac ^h edo			
353	날리-		tallinda	purejigo	niryado			
354	다치-		tac ^h inda	nirido	osyədo			
355	부러지-		purejinda	osinda	muc ^h edo			
356	느리-		nirida	muc ^h inda	c'origo			
357	오시-		osinda	sikk'o	sigəmyən			
358	무지-		muc ^h inda					
359	치-		c'orinda					
360	시-		signinda					

번호	조사형태	-n(nin)da	-ko	-Ato	-imyən	영
361	찰-	p ^h anda p'omninda	p ^h algo p'okk'o nilgo	p ^h arado p'obado nirado	p ^h almyən p'obumyən nilmyən	p ^h arəra p'obara
362	꽝-	ninda	na:k'o	nalbado	nalbumyən	
363	꽝-	na:l't'a	twijido	twijido	twijimyən	
364	꽝-	twijinda	pa:lgigo	pa:lgymən	pa:lgymən	pa:lgymən
365	꽝-자-	pa:lgindia	mac ^h igo	mac ^h ado	mac ^h imyən	mac ^h imyən
366	꽝-리-	mac ^h inda	cərigo	cəryədo	cerimyən	cəryəra
367	마-치-	cərinda	hwigo	cuədo	hwimyən	hwiera
368	마-리-	hwinda	culk'o	p'sədo	cuunyən	cuura
369	마-	cusinda	p'e:kk'o	kiurədo	p'səmeyən	p'esa:ra
370	줄-		kiulgo	ak'ado	kiulmyən	kiuryəra
371	빠-았-		ak'akk'o		ak'amye:n	
372	기-을-	kiunda	pangapt'a	c'ədo	c'amyən	c'ara
373	아-잔-	ak'apt'a	c'inda		no:ramyən	
374	반-갑-		no:rak'o		p'urimyən	
375	찌-		p'urigo			
376	노-랑-					
377	푸-르-					